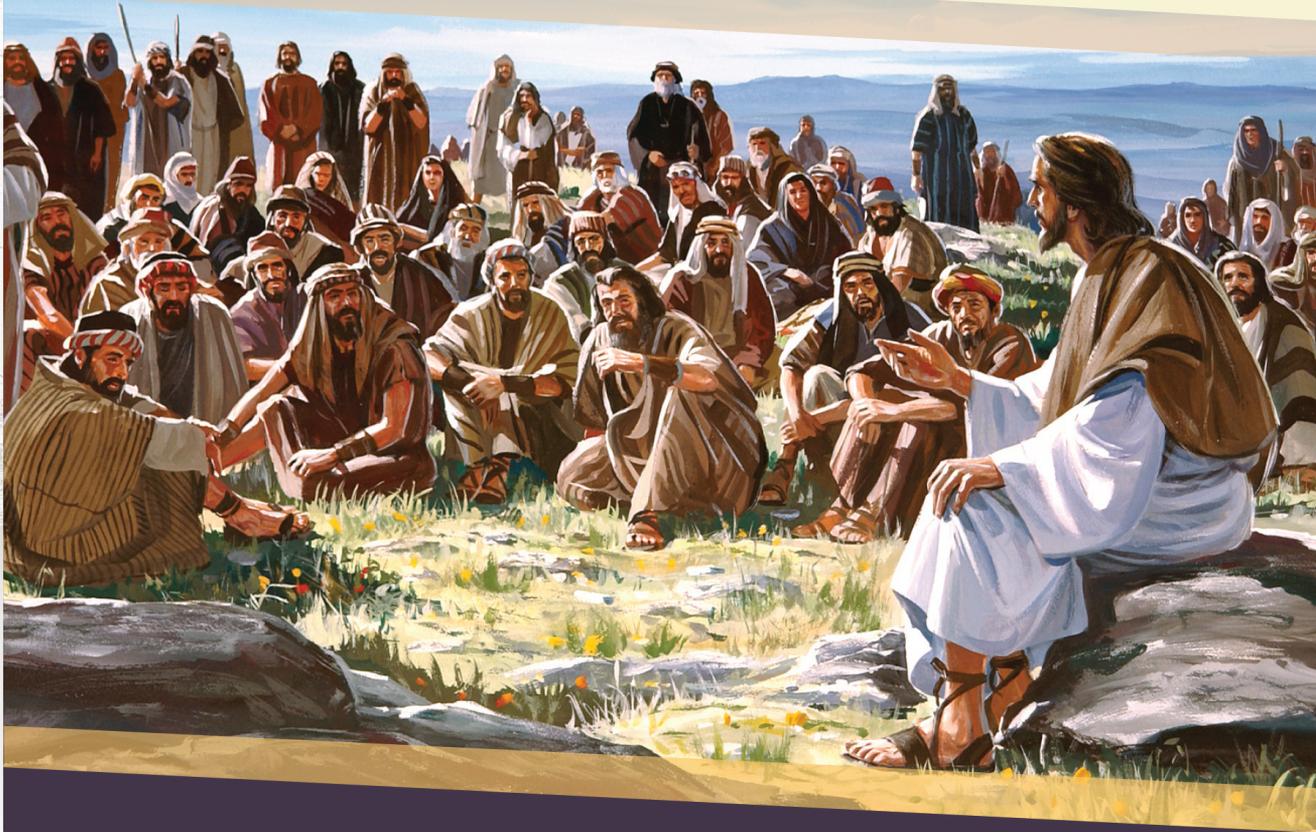


2025년

1월~3월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제 1부

## 요한복음의 교훈

사랑받는 제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신성한 해독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 목 차

1. 요한복음.....	5
2. 하나님의 어린 양.....	10
3. 가나의 혼인 잔치.....	15
4. 성전에 계신 예수님.....	20
5. 예수님과 니고데모.....	26
6. 성령의 감동하심.....	31
7. 예수님과 침례 요한.....	36
8.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41
9. 선교사의 탄생.....	47
10. 예수님과 군관의 아들.....	52
11. 예수님과 베데스다의 중풍 병자.....	57
12. 아들의 권위.....	62
13. 예수님께서서 군중을 먹이심.....	67

## 안식일 성경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 ]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 의성사

전 화 : 054) 435-1843

팩 스 :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 [www.sdarm.or.kr](http://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 서문

올해 우리는 요한복음의 교훈에 관한 분기별 간행물 4개를 연구할 것이다. 겸손하게도,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예수님을 처음 따른 두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하지도 않았다(요 1:37). 오히려 그는 “다른 제자”, “그 제자”, “그가 사랑하신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제자”를 암시한다(요 18:15; 19:26; 21:20, 23, 24). 요한의 이름이 생략된 반면 다른 저명한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사실은 그가 그 복음서의 저자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예언의 신에 따르면,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이었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세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체포 직전, 동산에서 그분의 고통을 목격하였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아들”을 사랑이 많은 기질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이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서는 법정의 위험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주위에 머물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갔다.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한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사도행적, 539, 540.

모든 고대 권위자들은 요한복음은 기원후 90년경 또는 그 이전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그 제자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떨어져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했고, 그 후 밧모섬으로 추방되었다(계 1:9). 그곳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썼다. 네르바가 왕위에 오른 후(기원후 96년) 그는 에베소로 돌아갈 수 있었고, 트라야누스 통치 기간(기원후 98-117년)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거주했다고 믿어진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번 기에 우리의 연구를 인도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 파라과이의 건강 및 다목적 교육 센터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파라과이 공화국은 남미에 있는 내륙국으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는 약 610만 명이며, 그 중 96.1%가 기독교(88.3%가 카톨릭, 7.8%가 다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 2.6%는 종교를 믿지 않으며, 나머지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국가 경제는 주로 농업, 특히 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파라과이는 지난 50년 동안 방대한 수력 발전 산업도 육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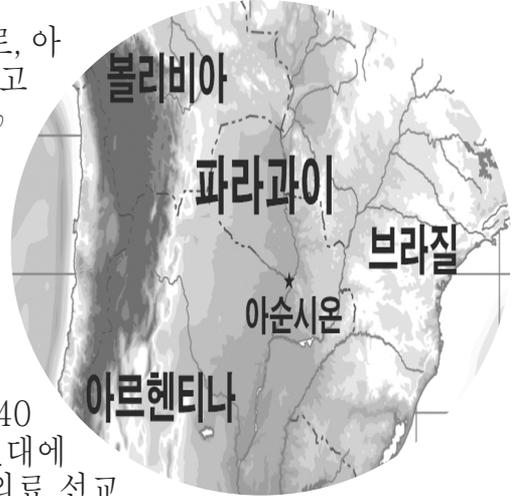
최초의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 신자는 1940년대에 헝가리에서 이곳으로 왔고, 1950년대에는 문서전도 사역을 통해, 1970년대에는 의료 선교 활동을 통해 사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주요 도시에 충실한 신자들이 훌륭하게 모여 있다.

수년 동안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연 건강 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가르쳤다. 하나님과 학제간 전문가 팀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을 되살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외곽으로 기능하고 시골에서 확장하여 신성한 명령을 이행하고자 한다. “도시들을 떠나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생병원들과 학교들과 사무실들을 세우라.” - 가려 뽑은 기별 2권, 357.

이러한 이상을 염두에 두고 수도에서 약 66km(41마일) 떨어진 파라과이주의 인상적인 시골 지역에 토지를 매입했다. 우리는 이미 부지에 교회와 사택이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목표는 기본 건강 센터, 교회 학교, 예배당, 자립형 건강식품 기업 개발 시설을 갖춘 다목적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주실 전 세계 형제들의 관대함에 호소한다. 여러분의 협력은 계획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에 새로운 추진력을 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에 안주하며, 주님께서 전 세계 우리 지역 사회의 노력을 축복하여 그분의 포도원의 이 부분에서 복음 전파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파라과이의 형제자매들로부터



#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인성을 쓰셨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28.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44~51, 111~116.

첫째 날(일요일)

12월 29일

## 1.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1:1, 2.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시대의 소망, 19.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부조와 선지자, 34.

나. 아버지와 천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시 45:6; 사 9:6; 히 1:3, 6~8.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御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 1:3)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부조와 선지자, 34.

## 2. 창조의 과정

가. 만물을 창조한 분은 누구이신가? 요 1:3, 10; 골 1:15~17; 히 1:2.

---



---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아 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시 65:6, 95:5)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그분이다.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시대의 소망, 20.

나. 세상과 우주가 창조된 방법을 설명하라. 시 33:6, 9; 104:1~6.

---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자연 세계에서 그분의 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분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수단의 저장소에 불과하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1권, 1081.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地表)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44.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매일의 끝에 창조주의 일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112.

### 3. 우주의 빛

가. 모든 생명과 빛의 저자는 누구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요 1:4~9; 행 17:28.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교육, 73.

“그리스도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모든 심령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교육, 29.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분께서 지으신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고 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움직이게 한 기계 조직이 그 고유의 힘에 의하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호흡 하나하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한 증거이다. 가장 작은 곤충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131.

“온 천연계를 통하여 작용하며 만물을 유지하는 위대한 힘은 일부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갓 보편적인 원칙이나 일종의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개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개체를 가지신 분이로서, 자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다.” -교육, 131, 132.

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 9:5; 8:12; 3:19; 12:46.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셨다. 연로한 시므온은 … 그에 대하여 ‘이방을 비취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 2:32)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이 예언은 메시아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자신이 바로 약속되신 사람이라는 그의 주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시대의 소망, 465.

## 4.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사 7:14.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마 1:22, 23.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24.

나. 예수님께서서는 타락한 우리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요 1:14; 빌 2:5~8; 히 2:14~18.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神性)이 인성(人性)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실물교훈, 17.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 매 걸음마다 공격을 받았다. 그분은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의해 광야로 쫓겨나 사십 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 ... 그분이 우리 본성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처럼 유혹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싸움을 치르러 오셨다는 것은 엄숙한 현실이었다. 그분의 유혹과 승리는 인간이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082.

“타락한 인간의 자녀로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생명의 왕자가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훈련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단과 힘을 겨루었다. 하늘에서 추방된 그는 자신이 위 궁정에서 질투했던 분을 지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이것은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가!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082.

## 5. 성육신의 목적

가.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요 3:16, 17; 1:12; 눅 19:10.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그분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그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 시대의 소망, 25.

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갈 4:5~7; 히 2:10.

---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명한다면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희생을 하였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이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바로 나타내고자 할진대 근신과 기도와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모본으로 주셨다.” - 교회증언 2권, 664.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불충실한 신하들을 위해 준비된 왕국이 아니라 죄로 인해 훼손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고 시련을 주신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왕국을 가지고 계시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자녀라면’ ‘불멸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은 하나이다.” -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077.

## 복습과 생각할 문제

## 일몰시각 17:26

1. 예수님은 영원부터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셨는가?
2.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은 분은 누구인가?
3. 모든 참 빛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4. 이사야 7:14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5.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후 무엇이 되셨는가?

#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눈을 고정하라.” - 믿음으로 살리라, 107.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132~143.

첫째 날(일요일)

1월 5일

## 1. 침례 요한의 증언

가.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선포했는가? 요 1:15~18.

나.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밝혔는가? 요 1:19~23. 그는 어떤 예언을 성취했으며,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사 40:3~5.

“이 지구 역사의 모든 활동무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 그분의 대리자들을 두셨으며, 그 일은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침례 요한은 특별한 일을 했고, 그 일을 위해 태어났으며, 그 일을 위해 임명되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의 광야 사역은 예언의 가장 놀라운 문자적 성취였다.” -남부 파수군, 1905.3.21.

“주님께서 그[침례 요한]에게 그분의 기별을 맡기셨다. 요한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나가서 혹시 그가 기별을 전파해도 좋으냐고 물어 보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정신과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들에게서 멀리 떼어놓으셨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니(사 40:3~5 인용) 바로 이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사 62:10)는 것이다. 백성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화평과 안전을 외칠 때가 아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0.

## 2. 희생의 사명

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어떻게 그분을 식별하고 대중에게 그분의 사명을 증거하였는가? 요 1:29, 34. 이것은 어떤 예언을 성취했는가? 사 53:4~7.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므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다. 유대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희생 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되신다. 제물을 드릴 때에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을 표상한 것이며, 표상적으로 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 자신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 -실물교훈, 126.

나. 요한은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는가? 요 1:35, 36. 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 1:37.

“이튿날[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두 제자가 곁에서 있을 때 요한은 다시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요한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어 그는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그러나 요한 자신은 그 말을 설명하지는 않았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 -시대의 소망, 138.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려 주었다. 그의 사명이 거의 끝나 갈 때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대하신 교사로 따르라고 가르쳐 주었다. 요한의 생애는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였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긴 하였으나 그에게는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뻐할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가 아니면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고독하였다. 그는 가족 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가정을 떠나야만 했다.” -초기문집, 154.

### 3. 예수님의 첫 제자들

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마 4:18, 21.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관심을 보였고, 처음 만난지 얼마나 되었는가? 요 1:38, 39.

“[예수님을 따라간] 둘 중의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항거할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에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뻐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고만 물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실 것이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메시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선생님은) 어디 계시오니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따로 만나서 그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照明)이 구약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 올랐다.” -시대의 소망, 139.

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무엇을 하였는가? 요 1:41, 42.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시대의 소망, 139.

## 4. 편견이 깨어짐

가. 예수님께서 다음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라. 요 1:43~45.

---



---



---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또한 즉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시대의 소망, 139.

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의 주저함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방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요 1:46~49.

---



---



---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 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 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 있다.” -시대의 소망, 140, 141.

## 5. 열린 하늘

가.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1:50, 51.

“[요 1:50, 51 인용]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고무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 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곤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시대의 소망, 142, 143.

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 4:14; 계 22:17.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그의 어조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제단에서 취한 편 쏙이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142.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32

1. 침례 요한이 광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우리는 침례 요한의 생활방법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3.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4. 나다나엘의 초기 선언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을 수 있었는가?
5.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엇이 드러내는가?

# 가나의 혼인 잔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요 2:5)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시대의 소망, 150.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144~153;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03~418.

첫째 날(일요일)

1월 12일

## 1.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가.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요 2:1, 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 주셨다.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비애의 잔을 마시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감사 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시대의 소망, 144.

나. 혼인 잔치가 끝나기 오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 2:3.

“그[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혼인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포도주없이 잔치를 치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는 표시로 보일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45, 146.

## 2.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요 2:3, 4.

---

“[요 2:4 인용] 이 대답은 우리가 듣기에 통명스럽게 보이지만 냉정한 말이나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구주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태도는 동양의 관습에 일치하는 태도였다.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태도로 대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고 하신 교훈에 일치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대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위탁하시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어머니를 부를 때 다시 사용하셨다. 혼인 잔치와 십자가 위에서 의 어조와 표정과 태도에 나타난 사랑은 그의 말을 이해하게 해준다.” -시대의 소망, 146.

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 2:5.

---

“그분[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완성에 다가 갈수록 진리의 선포에 있어서 더욱 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능력과 자원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에 거룩한 조력을 제공하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운 형편을 도우며,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강하게 하고자,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자 성령을 주신다. 그분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것을 제공하고자 하신다. 나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라고 당부한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라. ‘그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요 2:5).” -교회증언 6권, 414, 415.

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잔치에서 하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2:6~8.

---

“문간에 물 넣는 돌 항아리가 여섯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셨다. 물은 채워졌다.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 대신에 포도주가 넘쳐흘렀다.” -시대의 소망, 148.

### 3. 그리스도의 포도주

가. 포도주가 제공되었을 때, 잔치의 연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 2:9, 10.

“연회장(宴會長)이나 손님들은 모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종들이 날라 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우수하며, 잔치의 시작에 내놓은 포도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대의 소망, 148.

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종류의 포도주를 제공하셨는가? 사 65:8.

“그리스도께서 혼인 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를 말할 때에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사 65:8)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의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49.

다. 성경은 발효된 포도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잠 20:1; 23:29~35.

“구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20:1)는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러한 음료를 준비하시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중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열한 본성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극기의 모본이다. 그는 정욕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지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와 유사한 절제를 명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의 입술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친히 가르치신 교훈에 배치되게 행하지 않으셨다.” -시대의 소망, 149.

## 4. 사교 모임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범

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을 통해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요 2:11.

---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시대를 내려다보시어 우리 시대를 살펴보셨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사회의 상태가 어떨지 보셨다. 그분은 수천 명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죽는 것을 보셨다. 세상은 점차 홍수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따른다면 우리 자녀의 활력, 기술, 우수성을 창조하고 보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셨다.” -영문시조, 1896.4.16.

나. 그리스도께서 사역 내내 보여 주신 유쾌한 태도를 설명하라. 마 11:29.

---



---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시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힘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이게 하려고 애쓰셨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150.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으나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셨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 들이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일상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문제로 그들의 생각을 향상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는 방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셨으며 세속적인 경박의 그림자가 그의 행동에 흠이 가게 하는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순수한 행복의 정경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으며 친히 참석하심으로 사교의 모임을 인정하셨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인상적인 행사였으며 그 기쁨은 인자에게도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잔치에 참석함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다.” -시대의 소망, 150, 151.

## 5. 건강한 사회적 상호 작용

가.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한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잠 18:24.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의 장로들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전과 형식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不淨)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도 않았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궤도는 협소해졌다. 그들의 모본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자기 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켰다.” -시대의 소망, 150.

나. 모든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잠 11:30.

“우리는 정다운 언어와 명량한 표정으로 수많은 작은 관심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들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부주의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시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그들의 권리를 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구주께로 영혼을 이끄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축복과 특권들을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그들에게 우리의 종교가 우리로 동정심이 없거나 가혹하거나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를 발견했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하셨던 것같이 봉사하게 하라.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침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재림신도의 가정, 428, 429.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39

1. 가나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이 맺은 영적 열매를 설명하라.
2.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하라.
3. 연회장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4. 어떤 종류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적절하게 상징하는가?
5. 사교 모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 성전에 계신 예수님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

“교회의 구내는 신성한 경외심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494.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491~500.

첫째 날(일요일)

1월 19일

## 1. 성전이 더럽혀짐

가. 그리스도의 공생애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연했던 상황을 설명하라. 요 2:13, 14.

“모든 유대인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 세겔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이외에도 많은 금액이 자원하는 헌물로 드러져서 성전 금고에 넣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외국 화폐는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어졌던 주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다.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여 제사장들 및 관원들과 이익금을 나눠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시대의 소망, 155.

나. 이것은 성전 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겔 22:26[하단].

“유월절 때에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그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찢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시대의 소망, 155.

## 2. 하나님의 집에서의 경건함

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리신 첫 번째 지시는 무엇이었는가? 출 3:1~5; 19:12, 13.

---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 장소는 그의 임재하심으로 성별되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시대의 소망, 155, 156.

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모독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요 2:15, 16.

---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광경을 보셨다. 그는 부정한 거래를 보셨다. 그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다. 그는 그분의 성전의 바깥뜰이 부정한 장사의 장소로 변한 것을 보셨다. 신성한 구내는 일종의 광대한 돈 바꾸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시대의 소망, 157.

“예수님께서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구내 입구에 모아 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구내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열정과 준열하심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엮으셨다. 주화는 대리석으로 깎아 보드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정 수단으로 얻은 이익을 주워 모으려고 감히 멈추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시고 그들을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손에 들린 간단한 채찍은 마치 화염검과 같이 무서워 보였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투기(投機)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상인들과 가축을 파는 자들이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났다.” -시대의 소망, 158.

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3:1~3.

---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시대의 소망, 161.

### 3. 하나님의 임재

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성소를 세우신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출 25:8.

---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시대의 소망, 161.

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의 신성함을 온 마음을 다해 유지해야 하는가? 고전 3:16, 17; 사 57:15.

---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161.

“만일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벧후 3:11, 12) 바라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거기에 상응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열렬하고 엄숙해질 것이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진리가 그들 자신의 영혼에 깊이 심겨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고자 노력할 것이다. 진리는 오로지 바깥 뜰에서 너무 많이 보존되고 있다. 그것을 영혼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마음 속에 자리잡게 하고, 그것이 생애를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마음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하늘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생애와 무관하게 바깥뜰에서 보존되면, 마음은 타오르는 하나님의 자애(慈愛)의 불로 따뜻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특정한 몇 일 동안, 혹은 특정한 경우에 간직했다가 다른 때에는 버리고 등한히 한다. 영속적인 진리의 원칙은 단순히 안식일의 몇 시간 동안, 혹은 적은 구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품성을 세련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547.

## 4. 살아 있는 성전의 정화

가. 성전을 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무력한 상태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렘 2:22; 욥 14:4.

---



---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 시대의 소망, 161.

나.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겔 36:25~27; 속 3:3~5.

---



---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살후 2:8)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시려고 하셨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 시대의 소망, 108.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 오지는 않으신다. 그는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계 3:20)고 말씀하신다. 그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고후 6:16; 미 7:17)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엡 2:21, 22) 되게 할 것이다.” - 시대의 소망, 161, 162.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 시대의 소망, 166.

## 5. 오늘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집의 신성함을 부지런히 지키도록 어떻게 책임지우시는가? 합 2:20; 겔 44:23.

“하나님의 성전의 경내(境內)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 뜰에서의 악패를 시정했어야 했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했다.” -시대의 소망, 156, 157.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거룩한 사물과 장소가 식별되지 못하고, 신성하고 고상한 것이 이해되지 못한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옛날 백성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질서의 법칙을 주셨다. 그분의 품성이 바뀌었는가? 그분은 하늘들의 하늘을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히브리인에게 주신 지시를 자주 읽고, 우리에게 비취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본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교회증언 5권, 496.

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승리를 설명하라. 마 5:8; 요일 3:1~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즉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며, 우리가 불멸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하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42.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47

1. 성전에서 불의한 거래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2.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3. 예루살렘 성전이 지녀야 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라.
4.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5. 결함이 있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는가?

## 세계 재해 구호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전쟁, 전쟁 소문, 끔찍한 사고, 가뭄, 홍수, 허리케인, 지진, 화재,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모두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분명히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 수천 명이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길르앗의 치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곤경 속에서 세계 대총회 구호부는 전 세계의 형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금을 통해 기금에서 제공된 축복을 공유했다. 이러한 헌금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내지며, 첫째 안식일 연금을 통해서도 보내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은 자연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수백 가구에 식량을 제공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들에게 생계와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이러한 헌금은 부모가 가족을 부양할 씨앗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수입원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련의 시기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제단에 기부금을 바치도록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봉사를 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필요는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 더 늘어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관대함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되신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한다. 그 곳에서 실증된 원칙은 ‘주라! 주라!’는 것이다. 실제적인 자선과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참된 열매이다.” -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14.

오늘 첫째 안식일을 위한 특별 연금을 바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적게든 많이 바치든,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 공유된 사랑의 총합에서, 우리는 전 세계 형제들에게 축복을 계속 나누어 줄 것이다. “도움이 필요 되는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남을 복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13.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 세계 대총회 구호부 형제들로부터

#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2.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67~75.

첫째 날(일요일)

1월 26일

## 1. 저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다

가. 니고데모는 누구였으며, 그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여겨졌는가? 요 3:1, 10.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시대의 소망, 167.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대의 소망, 171.

나. 니고데모는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가? 요 3:2[상단].

“감람산의 구주의 휴식 장소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시대의 소망, 168.

## 2. 개인 면담

가. 예수님께서서 밤늦게 방문객을 맞이하신 데서 친절을 베푸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 31:20, 21.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산헤드린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만일 자기가 공공연히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모본을 쫓게 될 것이라는 근거 위에 자기가 은밀하게 회견하는 것을 변명하였다.” -시대의 소망, 168.

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면담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하라. 요 3:2.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태연함과 위엄의 품채로 감추려고 힘썼다. 그는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교사로서의 드문 재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함으로 그는 면담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랐다. 그는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가 자기의 말을 신임하도록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사실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하였다.” -시대의 소망, 168.

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니고데모를 갑자기 놀라게 하셨는가? 요 3:3.

“예수님께서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불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예수님께서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시대의 소망, 168~171.

### 3. 거듭남

가.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3:4~8.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기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대의 소망, 171, 172.

나.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거듭날 수 있는가? 요 1:12, 13.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7.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 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정로의 계단, 51, 52.

## 4. 정결과 거듭남

가. 새로운 출생과 함께 오는 정결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막 16:16[상단].

---



---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수님의 종교는 향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변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남을 의미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206.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후 6:17, 18)는 약속이 성취된다.” -교회증언 6권, 91.

나. 우리 인간 본성의 악과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이 선언되었는가? 요 3:6; 렘 17:9; 엡 5:26, 27.

---



---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意志力)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分限)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動機)를 깨끗케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18.

## 5. 새 생애와 신선한 행동

가. 사도들은 나중에 거듭남과 함께 오는 초점의 변화에 관해 어떤 기별을 썼는가?  
갈 2:20; 요일 2:15~17.

---



---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수님의 종교는 향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변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남을 의미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206.

“바울은 하늘의 대 주재에 의해 치러진 놀라운 희생을 이해하는 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끌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모든 이기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했다.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그분의 아버지 품안에서 차지하셨던 지위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내버려두고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것을 굴종시켜 인성을 취하여 종의 의무를 떠맡고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굴욕적이며 혐오스러운, 그리고 가장 치욕스럽고도 가장 괴로운 죽음-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인간에게 보여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현현을 그리스도인이 어찌 사랑의 감응 없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깨달음 없이 명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주님이 시기와 탐욕과 이기적인 동기로 섬김을 받을 수는 없다.” -교회증언 4권, 458.

“나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요 3:7)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과시를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이나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주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주택,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거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버린 사실을 입증한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따를 것인가.” -교회증언 5권, 189.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54

1. 니고데모는 선행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2.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3.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5. 거듭남의 결과로 어떤 태도 변화가 오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성령의 감동하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 15)

“보라, 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76.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95~102.

첫째 날(일요일)

2월 2일

## 1.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가. 니고데모의 어떤 질문이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음을 보여주는가? 요 3:9.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논쟁이 아니다. 영혼에 빛을 가져다주는 것은 논쟁이 아니다. 그대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늘나라를 식별할 수 없다. 그대를 올바른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은 더욱 큰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 새로운 행동의 원천이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제시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굴욕적인 진술이었다. ...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넉넉할 만큼 영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에 대해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

진리의 몇 가닥 빛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질문하게 되었다. 깊은 열성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요 3:10). 그분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안겨 주었다. 그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기분 상해하고 비꼬는 대신에 자신의 영적 무지를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훨씬 겸손하게 생각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토록 엄숙한 위엄으로 주신 바 되었지만, 표정과 억양 속에는 그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비천한 위치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68, 369.

## 2. 전형적인 태도를 바꿈

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했는가? 눅 18:9~12.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저희의 오랜 기간의 봉사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은 없었다.” -실물교훈, 400.

나.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요 3:8.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시대의 소망, 172.

다. 거룩한 인상은 어떻게 마음에 고정되는가? 사 30:21; 렘 42:3; 마 16:17.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지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2.

“하나님의 영으로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종되도록 하라. 얼음처럼 얼어붙은 영혼이 성령의 역사 아래 녹게 하라.” -서신 53, 1897.

### 3. 거듭남의 증거

가. 성령의 내적 역사는 어떻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가? 갈 5:22~25.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과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시대의 소망, 172, 173.

나. 사람은 언제 변화의 축복을 받는가? 롬 10:9, 10; 요일 1:9.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3.

“만일 성령께서 그대의 마음을 날마다 풀 지우시도록 한다면, 그 때에 그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는 신령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여 진실된 신자가 되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69, 370.

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예시하는가? 마 13:33.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실물교훈, 98, 99.

## 4. 친숙한 비유

가. 예수님께서서는 곧 일어날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요 3:14, 15.

“[요 3:14, 15 인용] 여기에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야가 있었다. 들림을 받은 뱀의 상징은 그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 놓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하여졌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3)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 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74, 175.

나. 그러한 마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가? 고전 10:9; 히 3:12.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에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널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계속하여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력은 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431, 432.

다. 구원받고 싶다면 어디를 쳐다보아야 하는가? 히 6:19, 20.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것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다.” -부조와 선지자, 431.

## 5. 눈을 고정하는 것

가.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해한 교훈 중 우리가 받아들이고 항상 명심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엡 2:8; 눅 13:20, 21.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특하면 성을 잘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실물교훈, 99, 100.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02

1. 그리스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2.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지 설명하라.
3.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 들어 올린 뱀의 상징을 설명하라.
5. 누룩의 비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가?

# 예수님과 침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요 3:30)

“침례 요한은 우리 구주께로부터 선지자들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한다.” -교회증언 5권, 224.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721~729.

첫째 날(일요일)

2월 9일

## 1. 제자들 사이의 문제

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질문이 생겼는가? 요 3:25.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업을 비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오래 되지 않아 기회를 찾게 되었다. 그들과 유대인들과의 사이에는 침례가 과연 사람을 죄에서 깨끗케 하여 주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났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곧 침례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논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침례를 베풀 권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하였다.” -시대의 소망, 178.

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질투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고귀한 대답을 했는가? 요 3:26, 27.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의 독기(毒氣)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와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 주었다.” -시대의 소망, 179.

## 2. 요한의 사명

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요 3:28, 29.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약혼한 양가의 사자로서 활동하여 혼인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고 하였다.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그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 셈이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추진하여 오던 이들의 결합으로 얻는 행복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구주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기쁨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179.

나. 요한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라. 요 1:23, 29.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께의 어린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요한 자신은 한 목소리, 곧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로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키워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식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와 더불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시대의 소망, 179, 180.

“자신의 쾌락과 편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노력하라. 각자가 이렇게 자문해 보라. 내가 어떤 영혼에게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킬 수 없는가? 내가 낙담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가? 내가 어떤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하심이 필요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흰옷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개요, 140.

## 3. 성령의 은사

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 3:32.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요 3:33).” -시대의 소망, 181.

나.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요 3:34.

“즐거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골 2:9, 10)다.” -시대의 소망, 181.

다. 더 큰 분량의 성령을 받는 비결은 성경에서 어떻게 더 계시되는가? 요 14:15~17; 행 5:32.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의 빛은 주의 깊이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으로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92.

## 4. 침례의 가치

가. 우리가 침례를 받기로 결정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취하는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3:36.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181.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에 대하여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시대의 소망, 181.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요 3:36)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롬 2:7)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33.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교회증언 6권, 91.

나. 침례가 의미하는 실제적 삶의 헌신의 깊이를 보여준 침례 요한의 놀라운 말을 설명해보라. 눅 3:7, 8.

“요한은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았다. 그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양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헤롯은 예리하고 강력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헤롯에게 그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초기문집, 154.

“침례 요한은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죄를 건책하였다. 그는 왕들과 귀족들이 기별을 듣거나 거부하거나 간에 저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말하였으며 노골적으로 말하였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49.

## 5. 현명한 방법

가. 바리새인들이 요한과 자신 사이에 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요 4:1~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 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그분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시대의 소망, 181.

나. 우리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요한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요 3:30.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여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대의 소망, 182.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10

1. 요한의 제자들은 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질투하게 되었는가?
2.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3. 성령의 은사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가?
4. 침례는 어떻게 그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는가?
5. 예수님과 요한은 제자들 사이에 위기가 올 위험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했는가?

#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시대의 소망, 187.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4권, 384~387.

첫째 날(일요일)

2월 16일

## 1. 수가의 예수님

가.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요 4:6.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에 그는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이제는 정오의 태양이 그에게 내리쬐었다. 그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여졌다. 그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우물은 깊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성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 길으러 오기를 기다리셨다.” -시대의 소망, 183.

나. 누가 우물에 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떤 친절을 구하셨으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요 4:7.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나라 오는 재치로써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태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로를 여신 그가 야곱의 우물에서 그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마저를 낮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시대의 소망, 184.

## 2. 다른 종류의 물

가.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그 여인의 주의를 구원의 선물로 이끌었는가? 요 4:10.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생수는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계시였다. 그분의 영, 그분의 교훈은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샘물이다. 그들이 즐겨 찾아가는 다른 모든 근원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시원한 시냇물과 같아서 언제나 만족을 주는 레바논 강물로 대표되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충분한 기쁨이 영원히 있다.” -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0.

나.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 4:11, 12.

“그 여인의 이해력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분이 그들 앞에 있는 우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예언의 신 2권, 140, 141.

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한 종류의 물과 다른 종류의 물을 구별하셨으며, 이 기별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요 4:13, 14; 계 22:17.

“우리는 사랑과 감사를 품어야 하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 결과로 신뢰와 소망, 인내와 용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0, 14). 이 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하며, 모든 영혼은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 때에 복되고, 겸비하고, 즐거운 신뢰가 영혼 속에서 항구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불신앙적인 두려움은 살아 있는 믿음 앞에서 쓸려가 버린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해야 한다.” -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26.

### 3. 생명수

가.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요 4:15.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곧 ‘주님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 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의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대  
의 소망, 187.

나. 사마리아 여인과 출애굽기의 광야의 나그네들처럼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시 78:15, 16, 19, 20[상단]; 시 114:7, 8.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기둥 속에 가리워져 모세 곁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구름이 사라졌더라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98.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임재는 항상 영혼에게 말씀하시며, 갈급해 하는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생명샘으로 그분을 제시하신다. 지속적으로 살아 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영향은 언행 가운데서 흘러나와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이를 상쾌하게 하고, 그들 속에 능력과 순결, 거룩함과 평강, 전혀 슬픔을 동반하지 않는 기쁨을 갈망하고 동경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결과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0.

#### 4.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하심

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셨고,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4:16, 17[상단].

---



---

“예수님께서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 그 여자는 그 방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하였다.” -시대의 소망, 187.

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대답을 어떻게 보충하셨고, 이것은 그분이 우리 각자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 요 4:17[하단], 18; 시 139:7, 8, 11, 12.

---



---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와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시 11:4) 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아시고,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교육, 132.

“하늘 천사들은 우리 손에 맡겨진 일을 조사하여 진리의 원칙에서 떠난 점에 대하여서는 하늘 책에 ‘부족하다’고 기록한다.” -새자녀 지도법, 154, 155

“하나님의 법은 감정과 동기, 그리고 외적인 행동에까지 미친다. 그것은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어 어둠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을 밝게 비춘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 모든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질러졌을 죄를 기록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율법으로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하신다. 예술가가 얼굴의 특징을 화판에 옮기듯이, 각 개인의 품성의 특징은 하늘의 책에 옮겨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품성에 대한 완벽한 사진을 가지고 계시며, 이 사진을 그분의 율법과 비교하신다. 그분은 사람에게 그의 삶을 훼손하는 결함을 보여 주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신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085.

## 5.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세주로 드러내심

가. 우물가의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요 4:19. 이 인식이 충분하였는가?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 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 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다지 반갑잖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 여자는 깊은 존경을 표시하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했다. 그 때에 그 여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면서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로 화제를 돌렸다.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오래도록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이 문제에 대하여 속 시원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187, 188.

나. 그 여인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4:25, 26.

“복음의 초청을 상류 사회의 소수인,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 문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읽으시는 그분께 가납되는 예배를 드러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는 우물가의 여자에게 하신 것과 같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신다.” -시대의 소망, 194.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17

1. 예수님께서서는 왜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2.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3. 주님께서서는 생명수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약속을 말하라.

## 루마니아의 “품성 있는 자녀” 교육 센터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청년들의 초기 교육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평생을 위한 품성을 형성한다.” -교회증언 3권, 135.

“유년집회와 유치 성경반은 성과가 훌륭했다. 어린이들은 배운 교훈들을 가정에서 반복하였으며,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옷을 말쑥하게 입힘으로 집회에 대한 저들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복음전도, 583.

“품성 있는 자녀” 교육 센터는 2019년 루마니아의 산악 도시인 파가라스에 설립되었다. 2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연령별 활동 외에도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 그들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께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의 성격은 날마다 형성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물질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

첫 해에는 12명의 아이들로 시작했고, 4년차에는 3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31명은 교회 밖에서 왔다. 현재 이 활동은 루마니아 연합 본부에 마련된 4개의 방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등록 청원이 우리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서 비좁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활동을 계속하고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2021년에 도시 외곽에 땅을 매입했고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 지금은 이미 기초가 놓였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이 계획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과 앞으로 후원해 주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부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호의에 호소하며,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루마니아 연합회 형제자매들로부터



# 선교사의 탄생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로이 섞이셔서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시대의 소망, 193.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182~187.

첫째 날(일요일)

2월 23일

## 1. 새 삶, 새로운 우선순위

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자마자 즉시 무엇을 했는가? 요 4:28, 29.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감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었다. 그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 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 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시대의 소망, 191.

나. 수가의 주민들은 동료들의 간증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요 4:30.

“그 여자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 여인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님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시대의 소망, 191.

## 2. 추수와 거두는 자들

가. 예수님께서 수가의 주민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4:35~38.

---



---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성한 봉사를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저 사람은 추수한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샅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일한 보수를 받고 함께 기뻐한다.” -시대의 소망, 191, 192.

나. 그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간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요 4:39.

---



---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 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들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시게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섬유질로 이어질 때 우리들은 풍성한 산 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빛과 연결될 때 우리들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써 세상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에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며 신령하게 되어 신령한 사물들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정신을 일깨워 주며 하나님의 율법의 기이한 이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품성이 변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

### 3.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존재

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청원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4:40.

---

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서 보낸 시간의 결과를 설명하라. 요 4:41.

---

“우물 곁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거두워졌던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었다. 그들은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어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가 깨끗이 가시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빛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짙막한 대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듣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교사의 말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동네에 초청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체류하셨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시대의 소망, 19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오랫동안 강권해 온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실현시킨 방법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하므로 구주의 산 모본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 부정적인 일꾼으로서의 그분을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새롭게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나타냄, 302.

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후에 무엇을 선언했는가? 요 4:42.

---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단순하심을 비웃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녀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앎이라’” -시대의 소망, 192, 193.

## 4. 예언의 능력

가.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예언에 근거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세웠는가?  
창 49:10.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로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언하였다. 야곱을 통하여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인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유대인들이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을 그릇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초림시에 있을 것으로 돌렸던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경 외에는 모두 버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러한 모든 거짓된 해석들을 일소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후기의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시대의 소망, 193.

나. 사마리아인들이 진리에 놀라울 정도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전 11:4, 5.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 나라 경계선에 있다.” -사도행적, 109.

다.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무엇이 되는가? 예를 들어 보라. 막 5:18~20; 7:31~37.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

그리하여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들’ 고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 -시대의 소망, 341.

## 5. 그리스도인 선교사

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요일 1:1~3; 고후 5:14[상단].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마쳐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부락민들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시대의 소망, 195.

나. 이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가? 전 11:6.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외국으로 갈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변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4:35, 36)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태만으로 죽어가는 배틀크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사업에 그들의 활동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요구하신다. 비록 금전적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배틀크릭에서 나오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어딘가로 가라. 그대들이 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라.” -교회증언 5권, 187.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24

1.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보았을 때 무엇을 했는가?
2. 추수를 위해 밭이 이미 희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설명하라.
3.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는가?
4.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증언을 했는가?
5.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예수님과 군관의 아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0, 21)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시대의 소망, 200.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107, 108, 164~166.

첫째 날(일요일)

3월 2일

## 1. 주의를 끝다

가. 사마리아인들과 이들을 보낸 후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그리고 이 소식에 누가 이끌렸는가? 요 4:43~46.

“그리스도가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으며, 이 소식은 고통 당하는 자들과 마음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가버나움에서는 이 소식이 왕을 섬기는 한 군관이었던 유대 고관의 주목을 끌었다.” -시대의 소망, 196.

나. 군관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유는 무엇인가? 요 4:47.

“이 군관의 아들은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걱정하였다.” -시대의 소망, 196, 197.

## 2. 의심의 표시

가. 가버나움에서 아들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군관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설명하라. 요 4:48.

“아이가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신하는 자기가 몸소 이 사정을 아뢰야겠다고 느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크신 의원되시는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랐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주하여 자기의 용무를 말하고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가시기를 구주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 그 군관이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시대의 소망, 198.

나. 표적을 구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마 12:38, 39.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자기의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시대의 소망, 198.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구한다.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저들에게 보여 줄 아무런 표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항상 나타나야만 할 표적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사의 심령에 작용하여 말씀을 가급적 감명 깊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기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95.

### 3. 대조적인 태도

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막 6:2~6; 요 4:40~42.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께서 기만자라는 증거를 내세우려고 노력하였던가!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릇되게 증거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책잡을 말을 살폈던가! 교만, 편견 및 정욕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모든 통로를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다.

주님께서 저들의 악을 지적하시고 저들의 행위가 사단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를 드러냈다고 밝히셨을 때 저들은 분노하여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고 하면서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70.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믿음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그분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심금을 울린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198.

“그분[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사도행적, 19.

나.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현대 진리를 전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설명하라. 렘 20:8~11.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강경한 이론들은 거짓된 증거에 근거를 둔 말이었다. 스테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으며 바울에게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릇된 편에 유리하도록 발언한 가장 무력하고 가장 신빙성이 없는 말들일지라도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참이기를 바란, 성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불쾌하게 들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서 어떤 가상적인 모순이나 과오를 발견할 때에 트집을 잡으려고 열을 낸다. 허위를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악한 억측들이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우리들을 에워쌀 때 놀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은 거듭거듭 그분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리둥절하게 되었으며 침묵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모든 뜬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반대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께 맹렬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핑계 거리로 삼았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71.

## 4. 겸손한 간청

가. 군관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는 어떻게 간청을 반복했는가? 요 4:49.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시대의 소망, 198.

나. 예수님께서 군관의 집에 가지 않고 행하신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요 4:50.

“예수님께서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실 맡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되었다.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시대의 소망, 198, 199.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은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

믿음을 시험하는 이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다.” -치료봉사, 230, 231.

## 5. 치유와 구원

가.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 군관의 아들을 고쳐 주셨는가? 요 4:51~53. 이것은 어떤 현실을 생각나게 하는가? 엡 3:20, 21.

“아버지가 믿음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 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시대의 소망, 199.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 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 열띤 흥조가 사라지고 건강으로 돌아온 연한 혈색으로 변하였다.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나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다. 그 아이에게 병의 흔적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불덩어리 같던 몸은 부드럽고 축축하여져서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바로 정오에 그 아이의 열이 사라졌다. 가족은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다.” -시대의 소망, 199.

나. 예수님께서서는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마 11:28~30.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시대의 소망, 198.

“그대는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다만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치료봉사, 65.

## 복습과 생각할 문제

## 일몰시각 18:31

1. 선지자들은 왜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가?
2. 군관의 어떤 말이 그의 불신을 드러냈는가?
3.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 누가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보였는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5. 예수님은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 예수님과 베데스다의 중풍병 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요 5:17).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시대의 소망, 207.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1권, 560~567.

첫째 날(일요일)

3월 9일

## 1. 치유의 물

가. 많은 장애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는가? 요 5:2, 3.

나.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 5:4.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나음을 받는다고들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뒤편 밀려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 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대의 소망, 201)

다. 예수님과 연못에서 한 사람의 상호 작용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 5:5~7.

## 2. 다양한 유형의 마비

가.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환자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요 5:8, 9[상단].

“예수님께서서는 이 환자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시대의 소망, 202, 203.

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가? 사 1:5, 6; 롬 7:24.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 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시대의 소망, 203.

다. 그러한 상태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무엇인가? 행 9:34.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 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죽었던’(엡 2:1)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203.

### 3. 새 생명으로 행함

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기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엡 2:1~6.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그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보다 더 잘 안다.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강한 정복자에게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도 사단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교회증언 1권, 341.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타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 모든 품성의 결함에서 깨끗해진다. 우리는 하나의 죄의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다. ...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악에 대한 유전적이고 배양된 경향은 품성으로부터 제거되고, 우리는 선을 위한 살아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데 하나님과 협력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확신으로 안식한다.” -리뷰 앤 헤럴드, 1900.4.24.

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얻는 평화를 설명하라. 롬 8:3~6.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고후 4:11)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낼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시 19:7)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이로움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롬 8:4) 이루어질 것이다.” -산상보훈, 78.

## 4. 바리새인들의 분노

가. 중풍 환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무시한 바리새인들은 왜 화를 냈는가? 요 5:9[하단], 10.

“[회복된 중풍 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곧 세계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기의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님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엄격히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낮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은 이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 관원들은 오직 한분만이 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앉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시대의 소망, 203, 204.

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마 23:4.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 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것들을 하게 하는 사람도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204.

## 5. 안식일과 그 목적

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법과 안식일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사 42:21.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는 율법의 위엄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축복은 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 오셨다.” -시대의 소망, 206.

나.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출 20:8~11.

“예수님께서서는 그 못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치유력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禁令)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

그리고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날에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시대의 소망, 207.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38

1. 베테스다 못에 대한 어떤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는가?
2. 어떤 특별한 사례가 그리스도의 관심을 끌었는가?
3. 우리의 영적 마비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4. 유대인들이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크게 화가 난 것은 무엇인가?
5. 어떤 행위가 안식일 계명과 조화를 이루는가?

# 아들의 권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5:26, 27)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208.

참조할 연구교재: 산상보훈, 123~129.

첫째 날(일요일)

3월 16일

## 1. 하나님과 동등함

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친 것 외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요 5:17, 18.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

유다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동일한 관계 속에서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해서 것처럼 격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그가 최고의 의미에서 이 주장을 하신 것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소망, 207, 208.

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전통보다 더 권위 있음을 입증 하셨는가? 마 15:1~9, 13.

“그리스도의 이 대적들은 그가 그들의 양심에 깊이 확신시키신 진리를 꺾을 만한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관습과 유전을 인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이런 논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에서 끌어내신 논증과 비교할 때 빈약하고 맥없어 보였다.” -시대의 소망, 208.

## 2. 아버지와의 연합

가.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요 5:19, 20.

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셨는가? 요 5:21~23.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요 온 지상의 심판자가 되심을 선언하셨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이르렀다. 그는 성육신 후에도 구속주이셨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러하셨다. 죄가 생기자마자 구주가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며,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을 주신 그분, 가장 친절하신 간원으로 영혼을 돌보시고 그로 죄에서 돌이켜 성결로 이끌려고 하시던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의 대언자요 심판자이기도 하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10.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깨닫고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 롬 2:1~3; 마 7:1.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요 5: 22)셨으므로,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다시 찬탈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관과 비평가의 위치에 서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살후 2:4)는 적 그리스도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 -산상보훈, 125, 126.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산상보훈, 124.

### 3. 귀중한 확신

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헌신적인 신자에게는 어떤 확신이 주어지는가? 요 5:24.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실물교훈, 38.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큰 사업은 의롭다 하심의 사업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는 자신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시며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 버린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떠맡으신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

비록 우리들은 죄인들로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당신의 순종을 바치심으로 그분 자신의 의의 공로로서 회개한 영혼들을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과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의 모든 기능을 통하여 그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은 회개를 자발적으로 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엡 4:8)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회개의 체험을 맛볼 수 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2, 393.

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계시하신 신성한 특권이 무엇인가? 요 5:25~29.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시험의 모든 찌끼를 맛보셨으며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당당하게 대항하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사 구원하시려 한 영혼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심판하도록 지명되었다.” -시대의 소망, 210.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권세를 받으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9.

## 4. 예수님, 성경의 중심 주제

가.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요 5:37, 38.

“그들이 자신을 고소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 행위의 목적을 설명하지는 대신에 예수님께서서는 관원들을 공격하셨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원고가 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의 강박함과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211.

나.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요 5:39, 40.

“구약 성경의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의 전체 제도는 하늘의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치밀한 예언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 (행 10:43)였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여졌다. 모든 향연(香煙)에서 그의 의가 올라갔다. 매 희년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렸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거하였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실체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만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힘썼다. 그들이 일단 이 길에 그들의 발을 옮겼을 때 사단이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의 반대를 북돋워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의 신성의 증거로 마땅히 받아들였어야 할 그 말씀까지도 그를 대적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전환시켰다.” -시대의 소망, 211, 212.

## 5. 하나님의 영광

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 교사들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요 5:41~44.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라셨던 것은 산헤드린의 영향도, 그들의 인정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서 인정을 들음으로 아무런 영광도 받으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것을 원하셨다면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을 것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의 관원들이 그분의 품성을 식별하고, 그가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그의 형상을 지니시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의 영광을 구하셨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하나 그들 자신의 의지에 충동을 받고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영접할 것이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고하기를 원하는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호소에는 응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짓 교사는 영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품고 있던 의견과 유전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자만심에 아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에 대하여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시대의 소망, 212, 213.

## 여섯째 날(금요일)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44

1.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권위와 권리를 주장하셨는가?
2.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항상 어떤 관계가 존재해 왔는가?
3.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4. 요 5:39을 설명하라.
5.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한 결과를 설명하라.

# 예수님께서 군중을 먹이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마 14:16)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거나 쓰여지도록 하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시대의 소망, 369.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6권, 341~348.

첫째 날(일요일)

3월 23일

## 1. 굶주린 영혼들

가.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요 6:1, 2.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물러가 계셨으나 평화롭고 조용한, 이 좀체로 얻기 어려운 시간은 곧 깨어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저희가 방해받지 않을 곳에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의 몇 사람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하여 뒤쫓았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오천명이나 모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 띄이지 않게 도착하셔서 제자들과 따로 잠깐 동안을 보내셨다.” -시대의 소망, 364.

나.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라. 막 6:34.

## 2. 우리의 필요를 돌보심

가.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아차리셨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여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는가? 요 6:3~6.

“산기슭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움푹이 는 무리를 보셨다. 그 때 그의 마음엔 불쌍한 생각이 드셨다. 방해를 당하여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한적한 곳을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저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발견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치유하시는 생명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잠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 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으셨다. ...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서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돌아다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364, 365.

나. 빌립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요 6:7.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 하여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시대의 소망, 366.

### 3. 이용 가능한 것

가.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떤 정보를 주었고,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요 6:8~10.

“예수님께서서는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 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식물을 그분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분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오십명씩 혹은 백 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 시대의 소망, 365.

나. 그리스도께서 음식물을 불어나게 취하신 단계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설명하라. 마 14:19; 막 6:37~41; 요 6:11.

“예수님께서서는 사치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흥분되고 긴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하고 배고픈 그 큰 무리에게 주어진 그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보증이 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호화로운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운명은 빈곤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보증해 준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것, 곧 그분 자신이 임하심으로 마음속에 거하는 위로를 약속하신다.” - 치료봉사, 47, 48.

“이 이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상호간에 나누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게 생명의 떡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임명된 교통의 수단이다.” - 치료봉사, 49.

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역에 대한 어떤 교훈을 상기하게 되는가? 사 61:6.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명령하셨다. 음식물은 그분의 손에서 불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뻗혀진 제자들의 손은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조금 밖에 안 되는 그 식물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였다. 무리들이 먹고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급된 귀중한 음식을 먹었다.” - 치료봉사, 49.

## 4.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

가. 예수님께서서 무리를 먹이신 후에 주신 중요한 지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요 6:12, 13.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시대의 소망, 368.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6:12)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음식물을 광주리에 담으라는 말 이상의 뜻이었다. 그 교훈은 이중적(二重的)이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속적 유익이 지나가 버리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류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들이다. 그와 꼭 같은 주의력으로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치료봉사, 48.

나. 불편하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적 특성을 기르라는 명령을 받았는가? 사 58:6~8; 뱀전 4:9.

“모든 비상사태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좌우하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위축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품는다. ‘우리의 연약한 힘과 빈약한 자원이 이 큰 필요를 어떻게 채워 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더욱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그 일을 맡아 줄 어떤 기관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비록 그대의 자원이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처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지할 때 값아 주실 것이다. 보잘것없는 공급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 것이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치료봉사, 49, 50.

## 5. 우리의 창조주이자 공급자

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특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가? 시 37:25, 26; 빌 4:19.

“적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충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양식을 백배로 증가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원으로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심으로 부족한 양식을 증가시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으시다. 선지자의 생도의 손 안에 있는 떡덩이와 채소를 증가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삽나이대’고 대답하였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같은 생각이 있음은 어쩔인가?

이 교훈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때에 아무도 그 명령의 타당성이나 순종할 때 이르러 올 노력의 결과를 묻지 말 것이다. 저희 손에 있는 양식이 필요를 채워 주기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주님의 수중에서는 그것이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커다란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무도 눈에 보이는 재원의 부족을 한탄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외적 형편은 유망하지 않을지 모르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은 재원을 계발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의 축복을 비는 기도로 그분께 가져온 선물을 옛날 선지자의 생도와 피곤한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 음식물을 증가시키신 것처럼 증가시키실 것이다.” - 선지자와 왕, 241~243.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51

1.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라.
2.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셨는가?
3.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질서 있게 지키신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4.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5.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베푸신 섭리가 특별히 놀라웠던 때를 말해보라.

# 첫째 안식일 연금



1월 4일

파라과이의 건강 및 다목적  
교육 센터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2월 1일

세계 재해 구호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3월 1일

루마니아의 “품성 있는 자녀”  
교육 센터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